신작 순풍 넷마블… '아미·日' 업고 흥행가도 달린다

〈방탄소년단 팬클럽〉

netmarble

MMORPG 외 다양한 장르 신작
국내부터 글로벌까지 공략 성공
올 긍정적 반응에 실적 개선 기대

방탄소년단 매니저 게임 'BTS월드' 이미지.

일곱 개의 대죄 그랜드 크로스 대표 이미지. /넷마블

그간 숨을 죽이고 있던 넷마블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부분 모바일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장르에 치중된 경쟁사와 달리 새로운 장르의 신작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적극적이다.

특히 올해 최대 기대작인 'BTS 월드'가 오는 26일 출시를 앞둬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1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넷마블은 지난 4일 출시한 '일곱개의 대죄: 그랜드 크로스'가 출시 일주일도 채 안 돼 한국과 일본 양대 마켓 톱 10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 게임은 원작 스즈키 나카바의 만화를 바탕으로 한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 '일곱 개의 대죄'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이다.

출시를 앞두고 진행된 사전등록에서도 한국과 일본에서 총 600만명을 돌파하며 기대감을 높인 이 게임은 국내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각각 매출 1위, 5위를 기록했고, 일본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는 각 매출 6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일본 시장에서는 지난 2017년 '리니지2 레볼루션' 출시 18시간 만에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를 차지한 이후 국산 게임 중 가장 빠른 흥행페이스를 보이고 있다.

반면, 경쟁사인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의 성적은 이날 기준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 34위에 머물렀다. 일본 '리니지M' 출시 이전 사전 예약 당시 183만명을 돌파한 것에 비하면 부진한 성적이다.

넷마블은 지난달 올해 첫 신작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올스타(이하 KOF 올스타)' 출시 이후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KOF 올스타는 출시 4일 만에 국내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매출 톱5에 이름을 올리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올 하반기 새로운 포맷으로 기대감을 끌고 있는 'BTS 월드'도 오는 26일 출시를 앞두며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이 게임은 방탄소년단(BTS)의 매니저가 돼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시키는 모바일 게임이다. 이용자가 방탄소년단과 상호작용하는 스토리텔링형 육성 게임이다.

방탄소년단은 세계 최정상 스타들만 오르는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 입성해 전석(6만석)을 매진시키며 글로벌 인기를 입증했다. 한국 가수가 이곳에서 단독 공연을 하는 것은 방탄소년단이 처음이다. 방탄소년단의 트위터 계정은 아미(방탄소년단 팬덤명)의 힘에 입어 팔로워 수는 국내에 처음으로 2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미 게임 공식 트위터 팔로워 수는 100만명을 넘어섰고, 댓글 반응도 폭발적이다.

넷마블은 지난해 신작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매출 2조213억원, 영업이익 241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반토막 난 수치다. 그러나 KOF 올스타를 시작으로 올해 신작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실적도 개선될 전망이다.

케이프투자증권은 "넷마블은 국내 모바일 게임시장 변화를 주도해왔고, 올해는 대부분 MMORPG 장르에 치중된 경쟁사들과 달리 새로운 장르의 신작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속화됐다"며 "글로벌 유저 기반이 확대되고 매출지속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오로라 닮은 '인조대리석' 신제품 출시

LG하우시스 '오로라 컬렉션' 6종

LG하우시스는 인조대리석 신제품 '하이막스 - 오로라 컬렉션'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오로라 컬렉션'은 LG하우시스 인조대리석 제품 브랜드 '하이막스(HI-MACS)'의 새로운 시리즈로 극지방에서 나타나는 오로라 같은 천연 대리석의 다양한 무늬를 인조대리석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구현해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로라 컬렉션은 오로라 비앙코(사진), 오로라 크림, 오로라 그레이, 오로라 토라노, 오로라 파비아, 오로라 산레모 등 총 6종의 디자인으로 출시했다. 이들 6종 모두 천연 대리석의 무늬를 자연스럽게 구현해낸 것이 특징이다.

이 가운데 흰색 바탕에 대리석 무늬를 적용한 '오로라 비앙코'는 최근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따뜻하면서도 모던한 느낌의 인테리어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로라 컬렉션'은 천연 대리석 고유의 무늬를 제품 전체에 고르고 안정적으로 분포시켜 인조대리석 가시공 과정에서 생기는 접합 부위의 자연스러운 마감처리도 가능하다. /김승호 기자

온·오프 유통사에 中企제품 판촉

중기유통센터, 대형유통사 판로 지원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이달 27일까지 신세계백화점, G마켓, CJ오쇼핑 등 총 20여개의 온·오프라인 대형유통사와 함께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아임스타즈 위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임스타즈 위크는 '2019대한민국 마케팅 페어'를 전후해 대형유통사의 인프라를 통해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 및 홍보를 독려, 내수판매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간이다.

평소 중소기업이 쉽게 진입하지 못했던 대형유통사에 중소기업제품을 입점하고 홍보·판매하는 것이 골자다.

2019대한민국마케팅페어는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종합전시회로 13일부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이번 '아임스타즈 위크'에선 온오프라인 대형유통사들이 참여해 각자 채널별로 중소기업을 위한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한다.

G마켓은 약 200개, 옥션은 180개의 우수 중소기업 상품을 먹거리부터 패션·뷰티 제품까지 다양하게 선보인다. 또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등 9개 오프라인유통망에선 중소기업제품 기획판매전을 진행하며 CJ홈쇼핑 등 7대 홈쇼핑사에서는 아임스타즈 위크 홍보에 나섰다. /김승호 기자

국회 간 소상공인 "민생 외면하느니 해산하라"

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 열어
이인영 원내대표 등 면담도 예정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오후 국회 정문앞에서 '국회 제 역할 찾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승재 회장(오른쪽 네번째) 등이 '국회는 민생을 외면말라'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만 일삼고 있는 국회로 달려갔다.

내년 총선만 생각하고 이대로 법안 등을 방치하느니 국회를 해산해 당장 선거를 치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오후 국회 정문앞에서 '국회 제 역할 찾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기자회견문에서 "국회와 정치인들이 민생을 돌보지 않는 답답한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면서 "우리 국회와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야한다는 자각이 일어나는 현실을 국회와 정치권이 진지하게 되돌아보길 바라고, 소상공인과 서민 문제 해결을 위해 당장 민생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또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한다고 약속하지만 정작 국회에 들어가면 소상공인들을 나몰라라 돌보지 않는 현실은 국회가 과연 국민의 대의기관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통대기업들의 행태를 바로잡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소상공인들의 염원인 소상공인기본법, 현안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 또한 의원들이 발의한 수 많은 대안이 잠자면서 최저임금 결정도 현재 구조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연합회는 국회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에 기초해 국민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행정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견제 기능을 다하는 본연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일행은 기자회견 이후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면담하는 등 5당 대표들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코트라, 韓 스타트업 아프리카 진출 돕는다

혁신 콘퍼런스 'NIW'에 한국관 구성

2018년 '한-케냐 비즈니스 포럼 및 비즈니스 파트너십 상담회' 모습.

코트라(KOTRA)가 국내 스타트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다. 코트라는 12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유니세프, 주케냐 한국대사관, 나이로비대학과 함께 '아프리카 혁신대전'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이낙연 국무총리의 케냐 순방 기간 열린 '한-케냐 비즈니스 포럼 및 비즈니스 파트너십 상담회'의 후속 사업으로 한국 스타트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트라는 케냐 정부, 유니세프,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이 공동 주최하는 아프리카 최대 혁신 콘퍼런스인 '나이로비 이노베이션 위크'(NIW)에 한국관을 구성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NIW는 아프리카의 전력부족, 보편적 교육기회 부족 등 여러 사회문제 해결을 주제로 열려 유엔 지속개발목표 달성에 공헌할 수 있도록 했다.

팀을 구성해 제한된 시간 내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는 '해커톤', 참가기업 소개(피칭),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전시 쇼케이스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